

전치부 All Ceramic Crowns의 재제작

권영대, 황수정, 류재준, 신상완, 서규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전치부 보철물의 경우 심미성이 많이 요구된다. 심미보철의 종류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재금속관, 전부도재관, laminate, porcelain inlay 등이 있다. 도재금속관은 강도가 우수하긴 하지만 도재 하방의 금속으로 인해 심미성이 저하된다는 것과 변연부분의 형태불량, 도재의 색조불량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상악 전치부 all ceramic prosthesis의 설측 지대치 형성이 부족하면 crown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파절되기 쉽다.

또 metal post and core도 색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PFM의 금속변연이 치은에 비쳐보이는 비심미성을 이유로 전부도재관을 제작한 경우와 치은 퇴축으로 인한 비심미성 때문에 전부도재관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변색된 치아의 색이 어두워서 전부도재관이 어둡게보여 재제작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부도재관을 제작할 때는 지대치의 색조를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지대치가 다소 어두울 때는 치아 미백 과정을 시행하던지 도재가 충분한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지대치 형성을 해야 한다. 또한 cementation 중에 사용하는 지혈제나 출혈에 의해서 치아의 변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한다.